

비아그라 먹으면 “눈 나빠진다?”

WSJ, 미국 FDA 진위여부 조사 착수 ... 경고라벨 부착방안 유력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Viagra)가 시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Wall Street Journal은 6월2일(현지시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최근 바이아그라 부작용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FDA는 만일 양자간에 상관관계가 밝혀지면 비아그라 표지에 경고라벨을 붙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아그라가 눈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은 종래에도 있었는데, 각종 임상결과 50대 이상의 복용자 10만명당 2-3명에게 시력약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심장에 부담을 준다는 분석이 제기됐었고, 혈압을 낮춘다는 실험결과도 발표됐다.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비아그라를 복용하고 있는 2300만명 중 수천명이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화학저널 2005/06/07>